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36 밥은 그리움

'마음 연구가' 들과 함께한 장보기

불교의 과학적 체계와 자비의 가르침을 서구사회에 설파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의 망명정부를 이끈 지 올해로 50년째다. 20대에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인도 다람살라에서 올해로 일흔 네 번째 생일을 맞았다. 티베트의 자유와 불교를 알리기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있는 티베트의 스님들은, 그들의 큰 스승임과 동시에 티베트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생일을 머나먼 타지에서 맞게 되었다.

일산 여래사에 기거하고 있는 남카 스님의 방에도 여러 티베트 스님들이 모였다. 옆방에 있는 웬덴 스님을 비롯해 인천 절에 살고 있는 진바 스님도 오랜만에 방문했다. 그런데 모처럼 만난 세 스님이 회포를 풀기가 무섭게 어딘가를 부지런히 나선다.

"스님들, 어디 가세요?"

우연히 길을 앞서가던 내게 "우리, 보살님 따라 갑니다"라고 농을 하는 스님들의 표정이 한여름의 햇살보다도 밝다. 스님들은 이내 "우리들, 내일 달라이 라마님 생신이라 시장에 장 보러 갑니다. 생신상에 차릴 과일 사려고요"라며 환하게 웃는다. 이것이 웬 횡재이랴. 나의 발걸음은 순간 중한 선약조차 잊고 스님들의 뒤를 졸졸 따른다.

일산의 한 마트에 도착한 스님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과일코너. 우선 수박이 무더기로 쌓인 앞에 걸음을 멈춰선 세 스님. 당최 어느 놈이 잘 익었는지를 알 수 없어, 이 수박 저 수박을 그저 어루만져볼 뿐이다. 옆에서 거들어볼 요량으로 "한국에서는 보통 수박을 톡톡 두들겨 '통통' 소리가 잘 나는 걸 사요"라고 참견하니, 스님들의 얼굴이 시범을 한번 보여 보라는 표정이다. 아뿔싸, 결국 점원의 장담어린 도움에 큼지막한 수박 하나를 건네받았다. 그 옆 코너에도 들러 굵직하고 잘 생긴 참외와 토마토를 골라 카트에 넣고, 사과, 바나나 등도 차례로 담는다. 그런데 배 코너에서 한참을 멈춰선 진바 스님, 이 배 저 배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더니 남카 스님과 무언가를 논의한 끝에 신중하게 한 봉지를 골라잡는다.

"한국 배는 크고 예뻐요. 과일 중에 최고로 맛있어요. 인도에도 배 있어요. 하지만 한국보다 작고, 맛도 별로예요. 그런데 단단한 배를 사야 맛있는데 배가 다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튼튼하지 않고…"

한국산 배에 칭찬을 아끼지 않던 진바 스님의 입안에는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지 입맛을 쩝쩝 다신다. 한편 한쪽에서 두 스님이 과일 고르는 것을 무심하게 바라보던 웬덴 스님의 마음은 순간순간 어딘가로 머물러 수심이 떠나질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스님은 티베트에 어머니를 홀로 남겨둔 채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했다. 중국의 통치 하에 자유가 억압된 티베트에서는 제대로 불교를 공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티베트의 스님들과 많은 티베트인들이 다람살라로 망명하기위해 목숨을 거는 이유다. 하지만 망명한 후에도 고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은 마음의 병이 돼 한시도 편할 날이 없으니 웬덴 스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달라이 라마의 생일 (7월 6일)을 앞두고 생일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는 웬덴 · 진바 · 남카 스님 (왼쪽부터)

"어머니가 걱정되고 보고 싶어 수년 전 어렵게 방법을 찾아 티베트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드리려고 달라이 라마 사진 갖고 갔다가 중국 공안들한테 잡혀 빼앗기고 9개월 동안 감금돼 있었어요." 당시의 고통과 홀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한 순간도 떼놓을 수없는 한 몸이 되었다. 하지만 후일 한국과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고 달라이 라마를 도와 통역을 해야 하는 임무가 막중해 게으를 새가 없으니, 그 마음 또한 애써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 묵직했던 마음을 잠시 털어놓은 웬덴 스님, "그런데 인도는 과일이 한국보다 종류가 더 많고 달아요. 또 값도 싸서 이 바나나 인도에선 두 무더기에 20루피밖에 안해요"라며 평상심을 찾아본다. 초와 인도차를 구하느라 잠시 모습을 보이지 않던 두 스님이 돌아와 장보기를 마치고 마트를 나서니, 어느덧 날은 어둑어둑해져 선선해졌다. 묵직한 과일보따리를 들고 돌아가는 길, 천진불과도 같은 스님들 덕에 마음에 차곡차곡 쟁여두었던 세파를 잠시 내려놓는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42 소통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어떻게 하면 人生이 술술 풀릴까요? 3

세 번째, 타고난 팔자가 좋아야 한다.

타고난 팔자는 어쩔 수 없이 바뀌지 않는다. 즉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될 수 없으며, 내 마음대로 우리 엄마 아빠, 형제 등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갈아 치우거나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의 인생행로는 얼마든지 나의 마인드와 관점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1.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은 바른 지혜를 생산해 낸다.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지혜가 바로 생겨 자신에게 맞지 않는 행동이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분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일을 벌이지도 않고 자신의 적성과 본분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해낼 능력이 생기게 된다. 즉 나의 어떤 한 생각이 나의 인생역할 수행 여부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이고 되지도 않은 생각들로 꽉 찬 사람들은 바른 지혜가 생길 리 만무하다. 어둡고 탁한 마인드에서 무슨 현명함이 나오겠는가?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엉뚱한 아이디어와 이상한 불평불만만 늘어놓게 되고 그로인해 더더욱 괴로워지고 허황됨을 도모하며 결국은 쪽박을 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은 만복(萬福)을 불러들이는 기본 터전이라 할 수 있다.

2. 귀티와 부티는 다르다는 것을 직시하면 대접받는 삶을 산다.

귀티 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다. 요새는 성형수술도 귀족 수술이란 것이 있어 더 귀티나 보이는 것을 선호하며 그렇게들 되려고 다들 안달이다. 이렇게 귀티 나는 사람을 선호하는 세상이다 보니 반대로 빈티가 나면 어디를 가도 무시당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티와 빈티를 잘 이해해야만 한다. 일단 귀티와 빈티의 차이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명품을 걸치고 갖고의 차이가 아니다. 귀한 사람은 부티 나 보이지만 부티가 난다고 해서 꼭 귀해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귀티는 그 사람의 습성과 마인드 언행 등이 모두 고루 배합되어서 나오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이다. 이 아우라는 물질로만 감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씀씀이를 갖느냐에 따라서 향기처럼 배어 나오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아우라를 지녀 어디를 가도 귀한 사람으로 대접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더욱 몇 배로 노력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대접 받는 귀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다.

3. 돈을 잘 쓰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돈은 반드시 돌고 돌게 되어 있다. 돈이란 것은 쌓아 놓고 움켜쥐고만 있다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다.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나를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단 돈이 절로 따르도록 하려면 베푼 만큼 들어오는 법칙을 잘 활용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며 사는 학생에게 맛있는 저녁밥과 함께 책 사보라고 용돈을 주었다고 치자. 그 돈은 너무나 유익하고 요긴하게 쓰였으며 상대에게 뿌듯한 기쁨을 선사했다.

이러한 기쁨은 발이 달려 있는 것처럼 반드시 내게 그 이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주의 법칙과 같다.

반대로 돈은 돈대로 쓰고 기분도 찝찝하고 욕만 얻어 먹는 경우도 있다. 유익하고 요긴한데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02)576-7575

모든 손님들이 만행화의 '고마운 선생님'

40~50년 전에는 신발하나도 참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무신 한 짝도 귀할 때인데 수제화는 일반인이 감히 구경도 못하는 최고급 신발이었죠.

그 시절에는 수제화 기술을 전수 받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늘처럼 높은 선생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디자인 담당을 '교장 선생님', 미싱과 봉제 담당을 '카피 선생님,' 전체적인 바닥부분의 관련 마무리 담당을 '바닥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학교처럼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만큼 신발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0%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수제화 작업은 세 명의 기술자들이 크게 재단, 미싱, 봉제, 바닥 공정 작업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 디자인 작업을 하고, 카피 선생님이 미싱 작업을, 바닥 선생님이 바닥 작업을 끝으로 모든 제조 과정은 끝이 납니다.

저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특히 제조 공정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공장으로 직접 신발을 사러왔습니다.

"신발이 고무신 코모양 같아 승복과 일반 불자들의 법복에는 어울려도 일반인들이 신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합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님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들에게 보기에도 예쁘고 신기에도 편한 신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아차린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대중적인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우선 용두동에 있던 작업실을 종로로 옮겼습니다.

일반인들이 원하는 신발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저도 신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함이었습니다.

특히 종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이점이 있었습니다.

작업실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찾아주는 손님들에게는 친절히 설명하고 작업과정도 보여주다 보니 서서히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아갔습니다. '신발모양이 고무신 같아 조금 낡아 보인다' '통풍이 잘 됐으면 좋겠다' 등등. 지금 돌이켜 보면 만행화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준 정말 고마운 진짜 '선생님'들이죠. 이런 진짜 선생님들 덕분에 저는 우리나라를 상징할 좋은 신발 '만행화'를 만들겠다는 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많은 분들에게 초심으로 늘 노력 하는 제작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02)733-5715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CD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사업분야
사찰홍보,행사,개인다큐,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도암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이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禪) 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